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 행복의 문 열릴지니...”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이 전하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



정진 행복을 부르는 힘

지광 스님 지음
랜덤하우스 펴냄 | 1만2800원

도심포교의 새 역사를 써 온 지광 스님(능인선원장·사진)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정진 행복을 부르는 힘>이하 정진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수필집인가? 법문집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광 스님은 “수필로 읽으면 수필집이고 법문으로 읽으면 법문집”이라고 답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법문이라는 것이 지광 스님의 입장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도 지광 스님의 신념이다. 지광 스님은 종교적 숭고함과 생활인의 바닥정서를 둘로 보지 않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진>은 모든 성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고한 교훈이고 그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다 깊은 근원에 닿아 우주적 진리를 전하는 힘찬 메시지임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적당히 경전을 인용하여 바른생활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글은 아니다. 성현들의 말씀과 경전의 여러 일화들을 적절히 소개하며 ‘정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

다. <정진>은 지광 스님이 수행자의 위치에서 대중을 향해 묵직한 울림으로 토해내는 삶의 나침반이다.

독재의 시절, 해직 언론인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불교로 귀의한 뒤 서울의 강남에서 방송 몇 개 들어 놓을 정도의 공간에서 시작한 포교. 그 때부터 도심 대형 사찰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지금의 능인선원까지. 지광 스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불자들과 함께 새벽 예불을 모셨고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땀뻑한 강의 일정을 소화해 냈다. 그리고 매일 수십 명의 불자들과 대면해 각종 상담을 하고 다양한 포교 사업들을 진두지휘 해 왔다.

그런 가운데 지광 스님이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쁨도, 고난도, 타종교인의 해고지도, 병고와 절망까지도 모두가 지극한 스승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모셔져 있는 부처님만 확실하게 믿으면,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불자들에게 힘차고 용기 있는 삶, 건강하고 성공하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았다.

지난 24년간 포교 현장에서 틈틈이 메모해 둔 상념과 애기거리, 누구에게든 꼭 해줘야 할 말들을 고르고 골라 묶은 것이 <정진>이다. 지광 스님에게는 그런 메모지가 2만여 장이나 있다. “몸을 낮추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지나치게 시대



언어를 도외시하는 것도 고립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다”는 지광 스님은 “대중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 가장 편안한 대중의 언어로 가장 승고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포교도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지광 스님이 전하는 ‘성공하는 삶’ 혹은 ‘깨침의 삶’의 키워드는 두 가지. 신심과 정진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지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스님은 “투철한 신심을 바탕으로 끊어지지 않는 정진의 힘이 나오는 것”이라 설명한다. 스님 자신이 강남에서 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힘 역시 신심과 정진이라는 두 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제 지광 스님의 신심과 정진의 무대는 세계를 향하고 있다. 스님은 미국 뉴욕에 대학을 설립하고 있다. 이 대학을 기지코 하여 미국 포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 지역에도 포교 거점을 마련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강연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지광 스님은 달라이라마나 틱낫한 스님 이상의 포교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우리 불교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계인을 한국불교 신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직접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뚫고 세계인의 생활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지광 스님의 신념이다.

<정진>은 지광 스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는 ‘목소리’지만 이를 계기로 세계를 향한 전법의 커다란 공명이 형성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광 스님의 육성설법 DVD도 책과 함께 제공된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마음에 찍는 ‘심표’ 하나



마음놓고 쉬는 도리

대우 지음 | 현암사 펴냄 | 1만원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재가 선객으로 꼽히는 대우(大愚) 거사. 20여년의 공직 생활을 접고 마음공부에 몰입해 온 대우 거사는 서울 현정선원에서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행과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우 거사의 기풍은 어떤 결과? 특별하지 않다. ‘네 본래의 성품 자리를 밝히라’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오늘날 대우 거사의 선실에는 마음을 놓고 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이 법은 쉽다거나 혹은 어렵다거나 하는 이해력의 수준에 따라 가능되는 법이 아니다. 알고 모르는데 속한 법이 아니라 실사 이해했다 해도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차면 차다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기풍에서 나오는 대우 거사의 가르침은 차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다. 대우 거사가 5년 전 재가 선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들과 역대 선사들의 가르침을 요약해 묶었던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현암사)>는 꾸준한 ‘교과서’였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두고 차다느니 답다느니 하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쉬는 도리>를 펴냈다.

1부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쟁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간결하게 소개되고 있다. 2부에 소개된 어느 고덕(옛날에 살았던 덕 높은 스님)이 남긴 ‘공부심법’은 다른 곳에서 얻기 어려운 거울이다. 마음공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열 가지로 추린 것이다. 3부에서는 대우 거사가 20년간 받은 질문과 대답들이 정리됐다.

임연태 기자

“禪은 행복을 여는 열쇠”



선의 이야기

타카다 아이카즈 지음 | 김형준 옮김 | 북스타 펴냄 | 1만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 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가지려는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과 버리고 나눔으로써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다.

세속적 삶은 언제나 갈망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 갈망은 술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 갈등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행복, 순간일 뿐이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탐욕적 삶은 자신의 얻을 보다는 남을 위한 나눔을 앞세운다. 구하는 것이 없고 비우는데 익숙한 사람은 늘 행복하고 그 행복은 영원으로 통한다.

의사가 본업인 아이카즈 교수는 일본에서 유명한 건강지킴이다. 그는 많은 강연과 TV 출연을 통해 행복한 삶의 비법을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선 수행을 강조한다.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한계를 돌파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선의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저서 <선의 이야기>는 막연하게 “선을 닦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 마음을 열라”고 외친다. “시시콜콜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그의 주장은 오직 ‘지금 여기서’의 삶에 충실하면 저절로 고요해지는 도리를 역설하는 것이다.

그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부처님과 역대 선사들의 ‘한 마디’를 던지는데서 실마리를 찾고 있다. 선의 가르침 한 대목을 통해 현실적인 삶의 방향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선의 이야기>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비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2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불광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단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음의 숲
4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룸미디어
5	영불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6	안거	봉문	법보신문사
7	절을 기차게 절하는 법	천경	법도의 마을
8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9	스님, 마음이 불연해요	법륜	정토
10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구법 求法

선의 원류를 찾아가서

이_고민사·천동사·아육왕사·백림사·임제사·오조사·사조사 02_능인사·동림사·진어사·우인사·보봉사·보리사·황벽사 03_보적사·석공사·정거사·보화사·남화사·대강사 04_대각사·별전사·광홍사·육중사·전법원(마경대)·복염사·남대사 05_보통사·서은사·녹산사·개복사·건명사·밀인사·석상사 06_송산 소림사·달마동·초조암·이조암·단하사·향암사·심조사·백장사 07_서선사·용원사·북적령 성적사·설봉사·승복사·개원사·만복사

정운스님의 중국사찰기행 1.2

환희 떠남

중국불교에 대한 일련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주간불교 구법을 향한 만행이와 생각하고 다녔다. - 현대불교 해에 수록해 있는 사진만큼은 어떤 자료나 책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한 현장 기록이다. - 법보신문 노트북과 사진기 하나 달랑 메고 중국사찰을 찾아 1년 4개월을 보냈다. - 불교신문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승 02-722-8760 이메일 sulpub@hananet.net

두투컴퓨터 TwoTwo

서울 (02)585-1141

금강장사

200여 종류의 출판물 지원 (107종의 출판물, 47종의 동요영상, 57종의 화상영상 등) 나이별 편지 발송 기능을 내장한 막강한 생일관리 기능지원 국내외 모든 우편물 인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 기능지원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동, 연등, 조지) 지원 단위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지원 영가위패를 한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지원 그 외 명함관리, 일정관리, 송액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지원 휴대용 문자메시지(SMS) 전송기능(금액조건에 따라 메시지 전송)

우리사찰 홈페이지 두투컴퓨터에서 만드세요.

멀리 떠 높은 디자인과 사찰정보 및 인동, 연등, 회계관리등의 웹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웹디자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리며, 제작후에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사주대전

국내최초의 전문역학프로그램

국내 최고, 最初의 명품프로그램 四柱大典 두투컴퓨터에서 만나보십시오.